

칼럼

MWC(Mobile World Congress) 2015 주제어 “The Edge of Innovation” - 혁신의 최전선을 넘어..



신용우
MBC 기술연구소 소장

MWC2015, 전세계 모바일 트렌드를 보여준다

3월 2일(현지시간)부터 3월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MWC2015”는 거대한 IT 흐름이 모바일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방송 분야에서도 이런 모바일 트렌드에 부합하여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



〈MWC2015 행사장 전경〉

핀테크, 금융과 기술의 융합서비스 미래 결제시스템을 바꾸다

MWC2015 개막 하루 전날 밤 삼성은 갤럭시 S6 제품을 발표하는 언팩행사를 개최하였다. 갤럭시S6는 삼성페이라는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삼성이 미국 벤처기업인 루프페이를 인수하여 ‘마그네틱 보안 전송 MST(Magnetic Security Transmission)’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애플페이 등이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가 되지 않았던 단점을 해결하였다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한 것이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



〈MST 기술을 도입한 삼성페이〉

신)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마그네틱 단말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애플페이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작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약 90% 이상의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삼성에 대응하여 구글 피차 이 부사장은 새로운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안드로이드페이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안드로이드페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누구나 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폰 결제서비스 분야에서 삼성, 구글, 애플이 전면전을 벌일 태세인 것이다.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중 단연 으뜸은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워치

스마트워치의 디자인은 거의 모두가 원형을 지향하고 있다는 느낌이였다. LG전자와 중국의 화웨이 등은 이전에 선보였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원형 스마트워치를 대거 선보였다. LG전자는 ‘LG 워치 Urbane(어베인) LTE’를 전시하면서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각종 앱을 원형 화면에 구현하였고 특히 시계 줄 부분에 NFC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문을 잠그거나 시동을 거는 서비스까지 시연하였다. 또한 NFC 결제기에 갖다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까지 구현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주목할 점은 LG나 삼성 등 기존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이 스마트워치 분야에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종속되지 않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운영 체제를 탑재한 점인데 LG의 웨OS와 삼성의 타이젠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화웨이는 둥근 모양의 ‘화웨이 워치’를 내놓고 승부수를 띄웠지만 안드로이드 웨어러블OS를 탑재함으로써 국내 업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향후 국내업체들과 협조하여 웨어러블기기에서도 동영상 콘텐츠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것 같다.



〈LG전자의 LG워치 어베인 LTE〉

스마트카, 모바일과 자동차의 본격적인 융합을 이룬다

자동차를 스마트폰과 같은 IT기기와 연결한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해 전시장 곳곳에 고급스런 자동차를 들여 놓았다. 자동차가 모바일 기기와 연결된 기술을 ‘Smart Car(스마트 카)’라고 한다. 쉐컴은 마세라티에 차량용 프로세서를 내장한 뒤 무선인터넷 등을 이용해 다양한 차량정보를 내장된 테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였고 스마트폰의 음악을 차내에서 듣는 서비스인 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음성인식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차량 고장시 스마트폰 앱과 차량정보센터에 동시에 알려주는 기능을 내장하였다. 구글이나 애플이 각종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무인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 IT, 통신 등 많은 업종이 모두 융합된 산업으로 발전될 날이 올 것이다. 여기에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방송사가 어떻게 방송서비스를 녹여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쉐컴의 마세라티 스마트카〉